

코스피	코스닥
4840.74	954.59
(+43.19)	(+3.43)
금리 (국고채 5년)	환율 (원·달러)
3.080	1473.90
(-0.010)	(+4.20)



4.7조 지원사격… 한화 김동선, 유통 판 흔드나

한화머시너리엔서비스홀딩스 출범
아워홈 인수 등 M&A행보에 주목
계열사 5년간 연 성장률 30% 목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사진)이 그룹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에 나선다. 한화그룹은 지주사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 지주회사인 ‘한화머시너리엔서비스홀딩스’를 출범시키고 김 부사장이 이끌어온 테크·라이프 부문 계열사 7곳(한화비전, 한화모멘텀, 한화세미텍, 한화로보틱스,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을 모두 편입시켰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유통과 첨단 테크를 아우르는 독자 경영 체제를 구축하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김 부사장은 지금까지 거침없는 인수 합병(M&A) 행보로 주목받아 왔다. 지난해 5월 국내 급식업체 2위인 아워홈 지분 약 58.6%를 8695억원에 인수하며 급식 시장 지배력을 키웠다. 지난해 말에는 아워홈을 통해 신세계푸드의 급식 사업부를 추가로 사들였고, 음료 제조사 퓨어플러스와 도심형 고급리조트 파라스파라(현 안토)까지 인수하며 식음료와 호텔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그룹의 휘닉스중앙인수까지 추진하며 몸집 불리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23년 6월에 미국 버거 브랜드 파이버가이즈를 들여와 9호점까지 확장하며 성공시켰고, 지난달 매각하며 약 600억원



기름값 6주 연속 하락세

국내 기름값이 6주 연속 하락한 18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월11일~1월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L)당 1706.3원으로 직전 주 대비 14.4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는 리터당 1601.7원으로, 직전 주보다 18.1원 싸게 판매됐다. /뉴시스

에 가까운 차익을 챙겼다. 2024년 미국 로봇 피자 브랜드 ‘스텔라피자’를 인수하고 지난해에는 자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을 론칭하는 등 외식 사업 수익성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도 김 부사장의 홀로서기에 힘을 실고 있다. 한화는 이번 인적분할을 기점으로 김 부사장이 관할하는 테크·라이프 부문에 2030년까지 총 4조 7000억원(▲2026년 9000억원 ▲2027년 1조원 ▲2028년 8000억원 ▲2029년 1조 2000억원 ▲2030년 8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시

점과 2027년부터 예정된 갤러리아 명품관 재건축 등 설비 투자에 2조 1000억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2조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앞서 아워홈과 신세계푸드 급식사업부를 인수한 데 이어, 인접 시장 진출을 위한 추가 지분 인수 등 M&A에도 6000억원의 실탄을 배정해 외형 확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배경에는 신설 지주사의 탄탄한 재무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신설 법인인 ‘한화머시너리엔서비스홀딩스’의 부채비율은 2.9%에 불과해, 존속 법인(305.7%)과 비교해 차입 여력이 매우 충분한 상태다.

이 같은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만큼 신설 지주 산하 계열사들은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장도 김동선 부사장에 뜨거운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화갤러리아 주가는 인적분할 발표 직후인 14일과 15일 이를 연속 30% 가까이 폭등하며 1200원대에서 단숨에 2000원대를 돌파했고, 16일에도 장중 한때 2635원까지 치솟으며 6.18% 상승 마감했다. 지주사인 한화 역시 14일 25.4% 급등한 데 이어 15일에는 52주 신고가인 13만 6500원을 기록하며 연일 강세를 보였다. <2면에 계속>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대출 문턱 더 높아지고 대환대출 금리 2배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며 시장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현실화하고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88~6.286% 수준이다. 지난달 5일과 비교하면 하단은 0.01%포인트(p), 상단은 0.097%p 상승했다.

◆ 고정·변동형 기준금리 모두 상승

고정(혼합형)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은행채(5년물 기준)가 3.580%로 같은 기간(3.452%) 0.128%p 오른 영향이 컸다. 고정(혼합형) 금리는 지난해 11월 중순 약 2년 만에 처음 6%대를 넘어선 뒤 2개월 만에 6% 중반까지 올랐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가 되는 신규코픽스가 지난해 11월 2.81%, 12월 2.89%까지 올랐다. 주요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4%를 모두 넘어선 상태다.

은행 고정형 주담대금리 상단 한달여 만에 0.097%p 상승 금리 상승세 당분간 지속 전망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삭제하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했다.

이승훈 KB금융연구소 금융경제연구센터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국고채 등 시장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글로벌 금리 여건, 재정 부담, 환율 변동성 등도 장기 금리의 하방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환대출 문턱 높아져… 차주 부담 ↑

앞으로는 주담대를 신규로 받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컨대 차주가 5년 전인 2021년 고정(혼합형)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갹신 시 금리는 2배 가까이 된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담대 금리는 연 4.17%로 2021년 1월(연 2.63%)과 비교해 1.54%p 올랐다. 당시 혼합형 주담대는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구조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면 변동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m-커버스토리

복지고용 우려… 정년연장 보다 ‘연공급제’ 개선 먼저

정년연장 딜레마

與, 60세→65세 방안 추진 중
“연공 아닌 직무·수행능력 기준
동일 가치노동 원칙 확립돼야”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추는 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겨, 해법 마련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여당과 노동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숙련 일자리 안정화, 정

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일치를 위한 법적 정년 연장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경제계는 정년 연장이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인 2차 노동시장 간 임금·복지 등에서 크게 격차가 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정년 도달자의 고용 연장으로 청년층의 신규 채용 일자리가 줄어 미래세대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정년 연장 반대론자들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

는 ‘계속고용제’를 선호한다.

정년연장을 두고 찬반론이 엇갈리는 와중에 정년연장을 논의하기 앞서 연공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공급제는 근속연수·연령 등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장기근속을 유도하지만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장하고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취업에만 성공하면 연공급제 하에서 안정적인 고임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일자리가 전체 일

도 나온다.

연공급제를 다수 채택하고 해고가 어려운 ‘폐쇄적 노동시장’인 한국에서, 기업이 고임금인 고령층 노동자의 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은 부담을 5년 동안 떠안아야 한다.

이용석 공인노무사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사실상 복지고용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고용은 기업이 고령 인력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정년연장 등) 때문에 인력 고용을 강제로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靑, 트럼프 ‘반도체 포고령’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상”
▲송언석 “靑, 영수회담 제안 묵묵부답…장동혁 단식 폼페 자제하라” /사진 뉴시스

▲우원식 의장, 싱가포르·인니 방문…협력 확대 논의
▲與 박수현, ‘1인1표제’ 이견에 “당권투쟁으로 보일 언행 자제해야”

▲나경원 “이참에 여야 불문 공천뇌물 전수 조사”
▲이 대통령 “가짜뉴스·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